

보성차 세계중요농업 유산 등재 박차

군, 주민설명회 갖고 등재 추진 관련 방향·전략 등 모색 차 생산기반시설·장비 지원, 차 박람회 개최 등 사전 준비

보성군이 보성차(茶)의 세계중요농업 유산 등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보성전통차시스템)로 지정된 보성차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추진을 위해 지난 23일 지역주민과 차 관련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과 생물다양성, 전통농업지식 등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구들장 논으로 유명한 안도 청산도 전역과 적박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발달한 제주 밭담, 경남 하동의 전통 차 농업 등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준도 역사성과 지속성, 생계유지, 고유한 농업기술, 전통 농업문화, 특별한 경관, 생물다양성, 주민참여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유산담당자와, 농업유산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등재방향과 전략을 설명했다.

군은 유기농 차밭을 가꾸고 수제차를 만드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차 생산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경관보전지불제, 차 관련 축제 및 박람회 개최 등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군은 또 오는 11월까지 전남교육청과 손을 잡고 지역 84개 희망 학교 중 50개 초·중·고등학교를 선정, 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유기농 보성녹차와 가루녹차(938kg)를 공급하고, 우리차 마시기 시범사업 확대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군은 농업유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조해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차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며 "공직자들도 녹차수도 보성의 자부심을 갖고 보성차 발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지난 23일 김철우 보성군수와 주민, 차 관련 종사자들이 '보성차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주민설명회'를 열고 등재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전국 100대 명산' 곡성 동악산에 명품 숲길 탄생

삼인봉~오토캠핑장 13.6km 37억원 투입 3년여만에 조성

전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인 곡성 동악산에 명품 숲길이 완성됐다.

27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삼인봉~초악산 20km 종주코스 중 도립사~동악산~배넘이재~형제봉~오토캠핑장으로 연결되는 13.6km 구간을 동악산 명품 숲길로 탄생시켰다. <사진>

2016~2018년 진행된 동악산 명품 숲길 조성에는 37억원이 투입됐다.

도립사~동악산, 오토캠핑장~형제봉, 네트어드벤처 등 모두 3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됐으며, 그 중 도립사~동악산 구간에 조성한 '하늘정원'은 단연 백미로 꼽힌다.

도립사를 따라 등산로로 진입하면 전남도 기념물 제101호로 지정돼 있는 도립사계곡을 만날 수 있다.

도립사 계곡은 크고 작은 폭포, 소와 담을 만들어내며 흐르고 있는 동악산의 대표적 계곡이다. 계곡을 따라 조성한 등산로



를 따라가면 동악산 대표 수종인 소나무가 백백하다.

등산로를 따라 3km 가량 더 오르면 명품 숲길의 핵심 시설인 하늘정원이 펼쳐진다.

이 곳은 '배넘이재'라 불리던 곳이다. 예전에 바닷물이 들어와 배를 타고 넘어 다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하늘정원은 배넘이재를 포함해 2.5ha에 달한다. 기존의 소나무를 적당한 간격으로 솎아 베고, 그 공간에 산수국 4만7200그루와 꽃무릇 11만7500그루를 심어 소나무와 화목류가 조화롭게 생육하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편의시설로 데크길 170m, 돌계단 150m, 생태연못 2개소, 휴게정자 4곳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어 동악산을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쉼터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동악산은 산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동서 남북으로 뻗어 있어 산행코스가 매우 다양하다. 도립사에서 시작해 동악산 정상만을 찍고 내려오는 한 나절 코스에서 전문 산악인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종주코스도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청소년·학부모 대상

'가족성장캠프' 실시

보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4일까지 이틀동안 보성군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42명을 대상으로 '2019 따로 또 같이가족성장캠프'를 실시했다.

2017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가족성장 캠프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통 기회를 제공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캠프는 심리코칭연구소 씨앤씨 이수진 부소장의 지도로 가족 역할극을 진행했으며, 마음산책 심리상담실 김수인 실장이 부모를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하는 등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건강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울포해수욕장에서 가족이 함께 소파를 즐기고 한국차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인 홍차 스콘 만들기 가족케이크 만들기, 천문관람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고흥군, '청년창업몰' 입점자 모집

녹동전통시장 내 연내 완공...식·음료분야 등 7개 점포

고흥군은 올 연말 준공 예정인 '청년창업몰'의 7개 점포 입점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창업몰은 청년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도양읍 녹동전통시장 부지에 사업비 9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건립된다.

군은 식·음료 분야 4개소, 디자인·공예·기타 분야 3개소 등 청년점포 7개소를 운영할 입점자를 2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으로 타·사·군 거주자도 신청일까지 고흥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최대 3년이며 1년 단위 평가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선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입점 대상자의 사업 마인드, 실현 가능성,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은 무상 창업교육, 사업 컨설팅, 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고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증명서류와 함께 고흥군청 인구조획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고흥군 인구정책 '효과 있었네'

'고흥애(愛) 청년유턴' 등 추진...올 상반기 39명 순유입

고흥군은 올해 상반기에 인구 순유입 현상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고흥군은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남도 2019년 상반기 인구이동 자료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39명이 순유입됐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고흥군과 나주시, 순천시 등 3개 지역이 인구 순유입 지역으로 나타났고 그밖의 19개 지역은 많게는 5000명에서 적게는 137명의 인구가 순유출됐다.

그동안 고흥군은 송귀군 군수 취임 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고흥애(愛) 청년유턴', 아이행복, 귀향귀촌 등 3대 전략 9대 과제 50개 시책을 담은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또 대외적으로는 서울, 부산, 광주, 순

천향우회와 고흥사랑 귀향귀촌 상생업무협약, 도시민 귀농귀촌 행복학교 조성운영, 내사랑고흥기금 100억원 조성, 2019년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300억원 지원 등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군민 다짐대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단체기업 축복꾸러미 사업, 젊은 육아맘 고흥애(愛) 수다방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고 있다.

송귀군 고흥군수는 "고흥군은 국민건강지수 1위, 여행환경 쾌적도 1위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도시민의 귀농·귀촌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인구 감소를 제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구례군, 관광 여행코스 리플릿 제작 적극 홍보 나서

구례군은 지역 내 여행코스를 안내하는 리플릿을 새롭게 제작해 관광홍보에 나선다.

'그래, 구례여행'이라는 표제로 제작된 이번 리플릿은 구례지역 여행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여행안내도와 관광명소의 정보를 보기 쉽게 요약해 사진과 함께 실었다.

또 삼대삼미(三大三美)의 구례지역 여행지를 관광객의 취향에 따라 골라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코스를 짜서 소개했다.

당일과 1박 2일, 2박 3일 등 일정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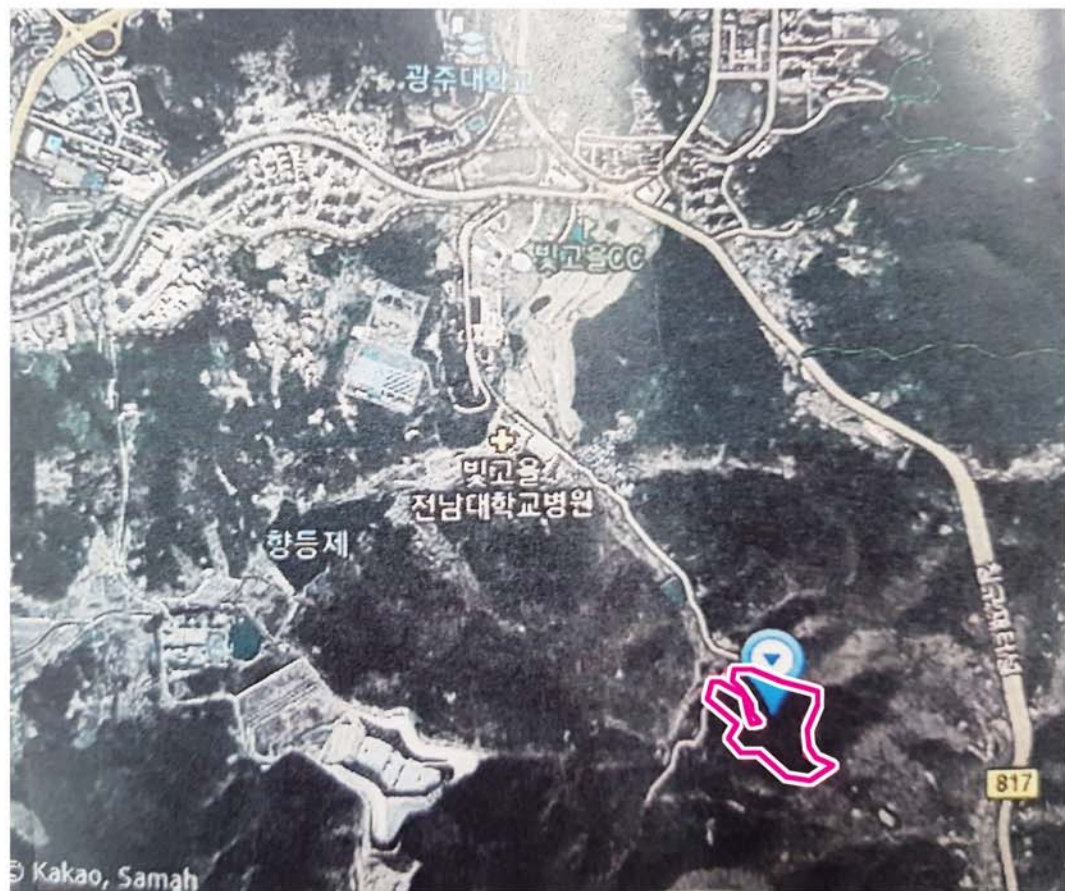
본 여행코스를 비롯해 힐링, 역사문화, 낭만, 체험 여행 등 테마별로 여행 추천 코스를 수록했다.

삼화삼색(三花三色) 봄꽃 여행 등 계절별, 축제별 여행코스도 소개해 사시사철 구례를 여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코스별 여행지에 대해서는 간추린 설명을 곁들여 추천코스의 이해를 높였다.

리플릿 후미에는 지리산권과 섬진강권 별로 구례 먹거리와 농특산물 정보도 담았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마지막, 600평 싸게 정리합니다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